

# 왕십리



2004년 신년호

내 · 마 · 음 · 의 · 풍 · 경



## 불꽃놀이

기대합니다.

올해에 평평 터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 다들 즐길준비 되셨나요?

글 · 사진 / 차주영

##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른다.

지나온 과거는 기억의 저편에 있고 미래는 순간 순간 다가오고 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였지만 결국엔 행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는 물러터진 나의 의지력에 실망한다.

내 자신이 이럴진대 아직 미성년인 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몰아치는 광풍은 어찌할 것인가?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은 어찌할 것인가?

금년에는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자녀에게 눈을 돌려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귀하디 귀한 우리 자녀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꿈과 열정을 가진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자. 인생길의 인도자는 자신도 부모도 아닌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자.

올해에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목회컬럼 / 카이로스	4
2004 목회계획 삼인의 교회들의 대부흥운동	5
기획기사 / 해로운 믿음(4) 주일 꼭 지켜야 하는가?	8
부서소개 / 장년 1부 말씀으로 하나되며 성장하며	11
기독교 문화유적답사/ 소래교회를 다녀와서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12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최제이 · 김지혜 선교사 인터뷰	14
독자투고 하루의 스승, 평생의 아버지	17
이디오피아 선교이야기(2) 그르마의 변화	18
왕십리 이모저모 사회봉사위원회 보고서	19
건강한 생활(연재) 소화장애의 한방요법	20
책속의 책 \ 가정예배 순서	21
책, 논리아 놀자 책-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음반- Lena Maria Live in Korea 2003	26
음식 콩나물 국밥	27

# 카이로스

오치용 목사

21세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날이 어제인 것 같았는데 벌써 2004년 벽두가 밝았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정한 시간 또는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의미있는 시간이고, 어떤 계획이 세워지고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신앙인들은 꿈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서 시간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세우고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카이로스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나라 왕십리교회’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95년이라는 기나긴 역사의 숨결과 뿌리는 100주년이라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2004년 한 해는 100주년의 길목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질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4년도 비전 : 삼인의 교회들의 대부흥운동

주제 : 작은 힘을 모아 교회들을 세우자

표어 : 성령으로, 자원함으로

성구 :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 2004년도 주요 역점 사역

#### 1. 총력전도

총력전도 3차년도에 접어들면서 좀 더 성숙한 전도의 자세가 요구된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동참하는 것이 총력전도이다. 영혼추수의 기쁨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크다. 매월 주체별로 이루어지는 총력전도에 이제는 적응력을 갖추고 대상별로 집중전도하자. 또한 1년 전체가 총력전도를 위한 기도 네트워크를 이루어 전도의 동력화를 이루어 가자.

#### 2. 교육

모든 교인들에게 성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2004년도의 목표이다. 교육의 분야는 경건훈련, 전도와 선교, 자원봉사자이다. 이를 위하여 한 교인당 1년 1강좌 이상을 수강하도록 하며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래서 교회의 임직 및 각 기관의 교사나 봉사자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 기준 교육학점을 이수한 사람에게 한하여 점차적으로 교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신앙인을 배출하고자 한다.



#### 3. 출애굽선교



금년 선교의 방향은 출애굽선교, 공동선교, 선교단인 교회의 3방향이다. 그동안 지속되어져 온 선교의 동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출애굽 선교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출애굽운동가 과정(ETC)을 개설하고 최첨단의 영성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를 향한 첨단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 4.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말씀, 기도, 성령이라는 3가지의 강력한 요인으로 일어났다. 이 운동이 ‘대부흥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왕십리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됨으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선도적 위치를 감당해야 하겠다.

따라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쓰는 말씀운동을 통하여 개인 심령에 부흥을 일으켜야 하겠고, 각 부서, 기관들마다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남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와 계속되어지는 24시 릴레

이기도를 비롯한 기도운동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기도의 불씨운동을 지퍼나가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으로 한국교회에 대부흥 운동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대부흥운동위원회 안에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리더쉽 과정이 개설되어짐으로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들을 발굴하여 교회와 민족을 책임지는 일군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가 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 5. 사랑의 나라 시민대학 개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대사회적으로 문화코드를 성경적으로 바꾸어 변혁시킬 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금년 봄부터 왕십리지역 주민 및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라 시민대학을 개설한다. 과목으로는 악기, 독서, 꽃꽂이, 서예, 수지침, 생활영어, 피부미용, 노래지도 등 각종 교양 및 취미 분야에 전문 강사

진들을 초빙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 더 많은 참여를 높인다.

#### 6. 가정사역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가정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여유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간간히 이루어져





왔던 가정 사역의 활동을 한 군데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가정사역을 하고자 가정사역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적치유와 가정,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등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교육, 상담, 치유하는 사역들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사역운동의 방향이다. 바라기는 가정사역운동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 7. 삼인의 교회 세우기

삼인의 교회는 우리 왕십리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교회 세우기 운동이다.

삼인의 교회 안에는 전도셀, 양육셀, 제자셀이 있는데, 전도셀은 태신자를 품은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고, 양육셀은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 한 명과 기존의 성도 두 사람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제자셀은 기존의 성도끼리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모여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제 2004년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삼인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린다.

## 8. 뉴타운 대비

하나님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있어온 성도들의 기도의 결정체이다. 이제 뉴타운 개발의 출발선상에서 뉴타운을 사랑의 나라 타운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첨단교회로 나아가야 하겠고,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외에 나그네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하며, 또한 그동안 계속되어져 온 대 사회적인 구제활동, 교회내 자원봉사자 일으키기, 왕십리백봉산교회의 본격적인 전도활동 등 많은 사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끝으로,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축복들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바라보자. 우리 모두 지역과 세계를 가슴에 품으며 시대적, 역사적 카이로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2004년 1월에



## 해로운 믿음 (4)

# 주일 꼭 지켜야 하는가?

조성유 전도사 (오포중앙교회)

본 글은 신학지남 2003년 가을호에 실린 김의원 교수님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안식일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요즘은 연휴 가운데 주일이 끼어있는 경우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린시절 주일날 교회 가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는 어머니를 피해 맨발로 교회까지 울면서 도망왔다는 주일학교 교사의 고백은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씩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주일성수와 관련해 요즘 교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성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왜 주일이 다른 날과 구분되는지 그 이유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한주간의 첫날을 지켜야 하는지 근거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하여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성경은 안식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창2:3)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었음을 만나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출16:21-30). 출 20장의 십계명 역시 이미 주어진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처음부터 단순히 하루를 쉬는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안식일의 근거는 바로 출애굽 사건(신 5:15)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히 4:8~10은 모세의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 때에 들어간 안식이 참 안식이 아니었으며 참 안식은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식을 거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까지 이어지는 다양성을 가집니다.

최근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안식일의 쉼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들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쉼 역시도 안식에 포함된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여한 사랑이고 질서입니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시고 그날을 복주셨다”(창 2:3)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폐기론자들처럼 그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쉽게 여긴다면 이는 큰 잘못일 것입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다면 이 역시도 큰 잘못입니다.

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루를 편하게 쉰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안식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안식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욱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교회의 사역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목상이 없는 안식도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목상이 없이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바쁘게 주일을 보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목상할 시간이 없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분을 목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안식일 혹은 주의 날 성수에 관한 주장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시고 그날을 복주셨다”(창 2:3)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안식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율법폐기론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 시대의 말시온적 이단주의자들과 종교개혁 시대의 재침례파 그룹에서 주장되었습니다. 다른 극단적인 견해로는 제 7일째 안식일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로 안식일(제 7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주일을 지키면서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법적 주일 이론은 4계명은 이미 폐지되었고 현재의 주일을 교회가 정한 독특한 규례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주장입니다.

주일의 의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수 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신 재창조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의 첫날을 주의 날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경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몇 번이고 주간의 첫째 날에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모이셨습니다(요20:19, 26, 행1:3).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이 이미 주간의 첫째 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 실행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주간의 첫째 날에 모여 성례식을 하며 강론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행2:7).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매주 첫날에 궁핍한 형제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였으며, 이것은 사도들의 명령에 의해 행하여졌습니다(고전 16:12). 본래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행해졌던 것인데, 이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이후 주간의 첫날로 변경되었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안식일을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만 마지못해 한정적으로 지켰습니다(롬14:5; 갈4:9-11; 행13:14, 42, 44 등).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과 같이 매주 지켜야 할 기념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안식의 날로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율법폐기론자들처럼 그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쉽게 여긴다면 이는 큰 잘못일 것입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 역시도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주일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목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주 5일 근무제는 영적 성장과 삶에 대한 기대와 향락문화에 대한 우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교인들의 훈련에 그 해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교회 내의 작은 교회 운동 곧 가정교회 내지는 구역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왕십리 교회의 삼인의 교회 운동도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잘 훈련된 리더가 이끄는 모임은 풍성한 나눔과 성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리더와의 모임은 오히려 소모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 변화에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는 당장의 출석교인의 수가 아닌 교회 내 지도자들의 영적 성숙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주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잃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매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일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 말씀으로 하나되며 성장하며

장년 1부

장년 1부를 아십니까?

장년 1부(부장 : 김은주 장로, 차장 : 양홍섭 집사)는 함께 모여 믿음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성경을 즐겁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구제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과 4시 30분에 출애굽 센터 2층에 오시면 성경공부 열기로 가득한 장년들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나 가정에서 말씀에 갈급하고 신앙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던것을 가득 채워주는 곳이 장년 1부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강사는 선교현장을 몸으로 맘으로 영으로 누비시던 백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수업과목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공부」- 오후 1시 30분,

「귀납적 성경공부: 빌립보서」- 오후 4시 30분 등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이 신앙을 고민하므로 부부금실도 무한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을 목사



님께 편지나 공부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함께 해결해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도 들을 계획입니다.



날이 따스해지면 기발한 생각들로 가득찬 더욱 풍성한 야외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 1부는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던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신앙훈련으로서의 모임이 돼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이 무미건조한 반복이고 기쁨이 전혀 없으시다면 주저 말고 장년 1부로 오십시오. 이곳에 오시면 다윗왕이 고백했던 '주의 말씀이 어찌 꿀송이 보다 더 단지요'를 직접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 매일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로 외로웠던 내 삶이 풍성한 교제로 넘칠 것입니다. 장년 1부는 문을 열어 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후회는 없을것입니다. 자! 가던길 멈추시고 출애굽센터 2층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는가?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과 소래교회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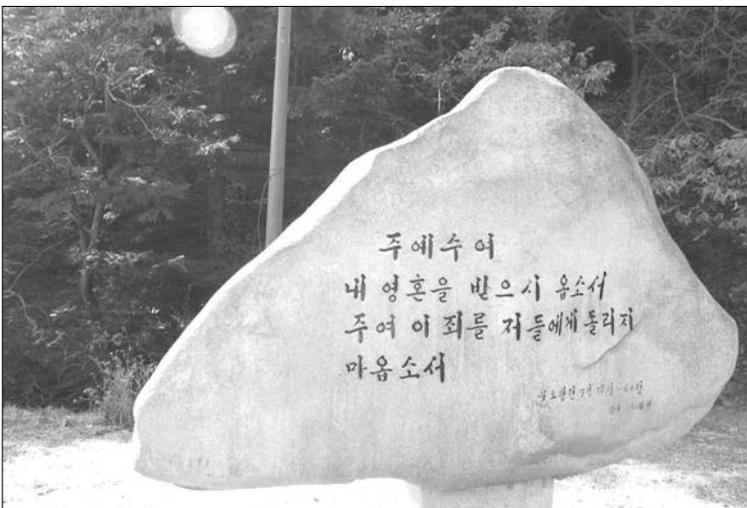
용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에버랜드라는 놀이 공원이 떠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용인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준 순교자들을 기념한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과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이다. 이 곳들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기념관 주변과 충신대 신학대학원 주변은 참 예쁘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자, 함께 떠나보자.

양지인터체인지에서 이천방향으로 4Km정도 가면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이 나온다. 가는 길에 기념관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입구에서 기념관 건물까지는 아름다운 숲길을 따라 순교 기념비들을 늘어서 있다.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순교비를 보면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신앙의 박해가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생각하게 된다.

기념관은 3층의 건물로 전체로는 직사각형의 가운데에 원통형을 넣은 구조이다. 지은 지 20여년이 지나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금은 쓸쓸해 보인다. 안으로 들어서면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이 먼저 맞아준다. 기념관 안의 그림들은 동양화

로 그려져 있어 그 느낌이 새롭다.

2층의 예배실에는 1930년대 이전의 선교사와 사회상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으로 가면 순교자들의 초상화와 성경, 편지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있다. 또한 당시의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 그들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해외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면

소래교회에서 풍속과 어학훈련을 받았고 아펜젤러, 게일, 마펏 등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바닷가의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의 어머니로서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였고 독립운동과 한국교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곳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알려지지 않은 이들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을까? 그들의 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커왔다는 것이 나의 작은 믿음을 부끄럽게 한다.

기념관을 나와서 다시 양지인터체인지쪽으로 1km정도 가면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방향을 가르키는 표지판이 나온다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우니 잘 찾아보자. 캠퍼스 정문을 들어서서 왼편에 생활관이 있고 그 뒤쪽에 소래교회가 있다. 이 소래교회는 1988년에 복원한 것이다.

소래교회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에 한국인의 힘으로만 세워진 교회이다.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인들이 이미 개척한 소래교회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한다. 해외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되면 소래교회에서 풍속과 어학훈련을 받았고 아펜젤러, 게일, 마펏 등이 이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바닷가의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의 어머니로서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였고 독립운동과 한국교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복원한 소래교회는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종을 치는 모습, 예배 드리던 모습, 사람들의 모습 등등. 작은 교회지만 한국교회의 뿌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깊다. 또한 이 교회를 기도실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아보였다.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믿음의 일꾼들이 기도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지금 우리에게 순교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예전보다 자유롭지만 오히려 더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어려운 시대일지도 모른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뿌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내 험클어진 믿음을 추스려야겠다.



# 최제이 · 김지혜 선교사 인터뷰

Q 떠나기 전.후(현재) 한국/서울/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과 다른 점?

A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해진 도시와 확장된 교회 모습이에요. 척박한 곳에 있다보니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비해 참 예의바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본인의 변화된 모습과 생각?

A 최제이 -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철이 든 것 같고, 한국인 그리고 하나의 민족(위구르)을 바라보던 시야가 전 열방으로 넓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제 비전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김지혜 - 변화된 모습으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것. 생각은 아무래도 나의 관심이 한국에 살 때보다 전도와 제자양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Q 현지 생활?

A 최제이 - 공안(경찰)과 안전부(비밀 경찰) 요원들의 감시와 이슬람의 핍박 외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고, 아주 즐겁습니다.

김지혜 - 나이 먹어서 어린 친구들과 사귀는 즐거움이 새롭고 새로운 언어를 계속 배워나간다는 자부심도 있어서 만족스러운 면이 더 많아요.



Q 부모로서 느끼는 점. 교육관 / 환경, 생각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

A 최제이 - 세계관이 올바른 지도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갖추면서 선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 여러 민족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져요. 다만 지금 재빈이가 겪고 있는 언어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시켜 주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문제는 자신감과 정체성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신앙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저 하루빨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급선무겠지요. 그후에 필요한 한글교육과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한국에(특히 왕십리교회) MK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간청할 생각이예요. 말이 나온 김에 재빈이가 이제 숫자와 언어를 배워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중국어나 위구르어는 간단히 알아듣고 대답하는 정도고요) 제일 먼저 한글을 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루무치에는 재빈이 친구들이 8명이나 있어요. 가끔 단

기팀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곤 하지만 그건 며칠 놀아주는 수준이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며 사랑을 나누며 가르쳐줄 사명감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부탁드립니다.

### Q 선교는 무엇일까?

A 최제이 -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늘로 찌르면 어느 손가락 안 아픈 것이 없는게 부모의 심정인데, 모든 민족을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건, 보내는 선교사건 관계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김지혜 - 선교는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노여워한 맏아들을 보며 느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자들이니까 성경의 맏아들처럼 굴지 말고 돌아올 동생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 Q 한국에서 선교사님이나 현지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A 최제이 - 첫째가 중보기도에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중국 열방 제자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 상태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저희 가정을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할 중국의 정병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단기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현지로 와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이려면 언어 환경이 좋은 이곳으로 와서 가정교사에게서 배우고, 그외 시간에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사역시 도우미로써 활동해 줄 수 있습니다. 단기로 헌신된 분들은 현지의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교체하며, 선교지의 뛰어난 영성을 공짜로 배울 수 있어, 세계관 및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김지혜 - 꼭 한국에서 선교사와 현지인을 돕고 싶다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규칙적인 중보예요. 중보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째 : 선교모임 같은 곳을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 단기선교를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제가 기도편지에 A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하실 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기도의 힘도 없고... 그러니 와서 보시면 정확한 상황을 파





약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종족을 입양하시듯이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입양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안문제로 교회 내에 사진이나 본명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개인에게는 사진과 본명과 그 사람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정확해서 좋고 본인이 직접 입양하셨으니 더욱 애착이 가며 또 함께 양육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말할 수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Q 현지에서 가장 그리운 것, 생각 나는 것?

A 최제이 - 금식할 때 한국 음식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특히 만두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리웠던 사람들은 가족과 양육했던 형제들이 가장 많이 생각 났습니다.

김지혜 - 가장 그리운 것은 가족이지요.

Q 삶 중에서 또는 현재 감사한 것?

A 최제이 - 부족한 저를 선교사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고, 특별히 위구르족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혜 - 저를 계속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가 감사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선교사'라는 이름이 저를 더욱 선교사되게 하는 것 같아요.

Q 개인적인 삶의 목표 또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본다면?

A 최제이 - 위구르 민족과 중국 한족을 준비시켜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가까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김지혜 -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만들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거예요. 또, 재빈과 재이를 그분의 계획대로 키우는 것이지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상투적인 말 같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민족들대로 모여 주를 찬양할 때 제 뒤에도 저의 제자로 인한 수많은 무리가 서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Q 책 추천

A 셀교회에서 G-12까지(김삼성 선교사-서로사랑) / 당신도 영적 카라반이 되라(김삼성 선교사-서로사랑) / G-12리더쉽(카스텔라노스-NCD) / 능력전도(존웬버-나단 출판사) / 4차원의 영적세계(조용기목사)

# 하루의 스승, 평생의 아버지

글 / 백기용 목사

홍콩 선교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는 내게 특별했다. 영겁 결에 김창인 목사님(충현 교회 원로목사님)을 가까이서 수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듯한 감격이 있었다.

부흥회 기간 중에 내가 받은 은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히려 더욱 뜨겁게 나의 가슴을 달구고 있다. 그것은 단지 선포된 말씀으로 받은 은혜 때문만은 아니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87년의 인생을 오직 주님만 섬기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삶이 그대로 내 가슴에 전달되어지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스승의 교훈은 잘 박힌 못과 같다(전12:11)는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 하나가 나의 가슴속으로 심겨지는 느낌이었다.

특히, 목사님을 키우신 이기선 목사님께서 주셔서 평생 마음에 새겨 오셨다는 '세상부귀여분토, 상제능력자연부'(世上富貴如糞土, 上帝能力自然富 : 세상의 부귀를 분토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나에게도 평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었다.

하루의 스승이 평생의 아버지와 같다고 한다(一日爲師, 終生爲父).

진실한 가르침과 삶의 모본은 것처럼 힘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목사님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며 배운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파란 만장한 세월의 무게만큼 인격이 다듬어지는 법이다. 목사님에게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겪어오신 세월의 풍랑만큼 다듬어지신 주님의 형상을 본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본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내가 그 연세가 될 때면 후배들은 나를 어떻게 보게 될까?



# 그르마의 변화

엄경섭 · 차남준 선교사

바흐르 다르 거리를 지나 가는데 거리의 아이들이 “파스터(목사님)”,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며 반갑게 물려듭니다. 아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다 보니 긴 꿈에서 깨어나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9개월 동안 이 곳을 떠나 있었는데, 지난 그 9개월 동안의 공백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순식간에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파루(Faru)가 전도사가 되어,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아내가 시작하고 주도했던 어린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가족에는 매주 목요일 마다 120명 가량의 아이들이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배우고 있었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토요 클럽, 주일 학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전도사 파루의 사역을 돕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르마(Gerema)라는 청년인데 9개월 전 파루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파루는 길거리에 모여 있는 일단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짜트(Chat)”라는 잎사귀를 씹으며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파루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파루를 모욕하며 당장 떠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파루는 이들의 협박에 개의치 않고 이들이 주는 위협과 모욕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후 파루는 길을 가다가 잠깐 서달라는 누군가의 외침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르마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르마는 이들 전 파루에게 비아냥거리며 협박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르마는 파루에게 자신이 파루에게 비아냥거린 후로 자신의 마음이 꽤나 편치 못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파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파루는 복음을 들려주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르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날로부터 그르마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르마는 더 이상 “짜트”를 씹지 않으며, 동네 건달들과도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르마의 형과 어머니는 그르마에게 접근하는 개신교인인 파루를 몹시나 싫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르마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파루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르마는 회심한 지 8일만에 파루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파루의 모든 사역을 돕는 좋은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르마는 성경 학교에 들어가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함께 굶즈에 들어가야만 하는 파루를 대신해 그르마가 희망의 가족과 토요 클럽, 그리고 주일학교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 사회봉사위원회 보고서



살롬의 집

나그네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을 12월 24일 이웃봉사관에서 250여명 참석한 가운데 봉사원 전원이 참석하여 크로마하프단의 축하송을 한 다음 오치용 담임목사님의 근고말씀으로 즐거운 식사를 하다.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무료급식과 무료 이미용을 봉사하기로 결정하다.

## 1. 소망의 집 방문

사회봉사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마천동에 있는 소망의 집에 방문 위로하다. 소망의 집에는 1세부터 20세에 이르는 중증지체장애우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들로(31명) 자원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집이다.

## 2. 살롬의 집 방문

12월 15일 김포에 있는 살롬의 집에 방문 위로하다. 살롬의 집은 지체 장애우들 30여명이 자활을 위하여 전자 부속품을 생산하고 있다.

## 3. 무료 급식

## 4. 심방부 활동

2004년도부터 심방부를 조직하여 독거노인, 중증환자, 외로운자 등 60여 가정(본교회40, 이웃 20가정)을 심방 활동하기로 결의하다.

## 5. 감사패수로

성동구청(한마음회)에서 12월 30일 본교회에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를 증정하다.



소망의 집



# 소화장애의 한방요법

임청산 / 안수집사(임청산한의원 원장)

기능성 소화불량은 특별한 원인없이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이 반복되는 증상을 일컫는데, 아직 병태생리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유병율 약 25%로 추정되는 흔한 질환으로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증상으로는 음식섭취 후 소화가 안되고, 식후 포만감, 식욕부진, 상복부 팽만감, 트림, 상복부 불쾌감 또는 통증, 속쓰림, 오심(메스꺼움), 구토, 위산 역류, 가슴앓이(heartburn) 등이 나타난다. 대개 증상을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데 수주간 증상이 없다가 수주 내지는 수개월동안 증상이 다시 지속되기도 한다.

## 한방요법

- 1) 인삼에는 항히스테리 작용과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거나 위가 허약하여 오랫동안 먹은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 좋은 효과를 내는 식품이다. 또한 인삼은 혈액이 응결되어 생기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힘이 있어서 혈전으로 인한 위의 장애를 방지하고 위의 팽만감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삼주 뿌리는 주로 위아토니증(위근 �약증), 위하수증에 효과가 있다.



먹는 방법 : 인삼과 삼주 뿌리를 가루내어 꿀로 반죽해서 환을 지어 먹는다.

삼주 뿌리 3-5g을 생강과 함께 달여서 매일 먹는다.

- 2) 칩뿌리는 한방에서 갈근탕이란 이름으로 감기, 해열, 신경통, 위장병 등에 효능 있는 약으로 쓰이고 있으며, 민간요법에서도 주로 위장약으로 쓰이고 있다.

먹는 방법 : 말린 칩뿌리를 가루 내어 먹거나 생즙을 내어 마신다.

- 3) 알로에는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장의 유동작용을 좋게 하여 소화력을 증진시키며 장 점막의 분비를 촉진하여 쌓인 숙변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먹는 방법 : 알로에, 소주, 꿀을 섞어 두었다가 5주일 정도 지난 후에 먹는다.

## 생활 습관의 개선과 식이요법

1. 술, 담배, 커피, 탄산가스가 포함된 음료수를 삼가한다.
2.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3. 맵거나, 자극성이 강한 음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음식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에 따라 많이 다르므로, 본인이 먹어서 불편한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다.
4. 과식을 피하며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 위의 부담을 줄인다.
5. 가급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

# 가 / 정 / 예 / 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성경 / 욥기 8:5-7 · 찬송 / 23장, 25장

## 성경 말씀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이에게 빌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향동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 ‘창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량적인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환난도, 시험도 있었지만 지난 세월을, 짧지 않은 세월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을 더 말합니다.

**창대함을 경험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누구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름대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인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크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냐고 하니 “나는 미약한 자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창대한 모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이 뻗뻗해야 말할 줄도 모르나이다”하고 자기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 3장 8절에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자인 것처럼 빛인가 뽐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리십니다.

**둘째로, 이렇게 나는 심히 미약한 자인데 이렇게 미약한 자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미약한 자를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뜨겁게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 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주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될려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6절에서처럼 정직하고 청결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쓰시고 안쓰시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들은 자신을 깨끗이하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올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서 하나님의 어떤 자리가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 2004년 각자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제목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각자 한가지씩 올해의 목표를 선정해 봅시다.

##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 마무리 기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2004년 도가 되게 하소서.

# 믿음의 시작과 열매

성경 / 호세아 6:1-3 · 찬송 / 46장, 88장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참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 1.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 아이를 잉태할 가망이 전혀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 2.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 3.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20~21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때때로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 열매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성경 말씀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 \*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간증을 들어 말해봅시다.
2.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나눕시다.

## \*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 \* 마무리 기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 일의 시작과 결과

성경 / 역대하 16:7-12 · 찬송 / 172장, 214장

## 성경 말씀

7.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룬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9.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확대하였더라 11.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12. 아사가 왕이 된지 삼십 구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본문을 포함하는 아사왕의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사왕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나 솔로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들은 시작은 좋은 반면 끝은 불행이었을까요?

##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아사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 상을 찌는 종교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을 명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는 아사왕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35년까지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에 북 이스라엘의 바아사왕이 침략해 왔습니다. 아사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은 간 곳이 없고, 아람 왕인 ‘벤허닷’에게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주면서 북 이스라엘 군을 물리쳐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아사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2. 구하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사왕은 세상을 의지하면서부터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난폭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아사왕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집권 말기인 39년에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심한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까? 후시 시작은 좋았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상 쪽으로 기울지나 않았는지요.

## \*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1.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2.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 \*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 \* 마무리 기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 성전에서 시작하자

성경 / 시편 11편 4절 · 찬송 / 235장 277장

## 성경 말씀

4.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고 생활하자는 의미입니다. 먹고 입고 만나고 헤어지고 살고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자는 말입니다.

### 1. 여호와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찰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살펴십니다. 물론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지 않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는 곳은 성전입니다.

### 2.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성전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셨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 3. 성전에서 기도를 했다.

초대교회 때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에 저들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 4. 성전에서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사역에는 갈릴리 바닷가나 혹은 산이나 배 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주님의 가르침은 성전 중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 그리고 생활의 내면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 \* 대화하기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가 진정 교회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편의주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교회 중심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 \* 기도제목 나누기

(가족들이 서로의 기도제목을 말하고 예쁘게 적어 벽에 붙여 놓습니다.)

## \* 마무리 기도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면 능력을 행하게 하소서



저자 : 김원호 장로  
출판사 : 예수전도단  
가격 : 6000원

## 그리스도인의 권리포기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신앙의 경력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의 이질성'을 똑같이 느끼고 고민했던 저자, 김원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받았던 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강의 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던 모

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저자의 삶 가운데서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왕십리교회 지체들도 2004년은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가수 : Lena Maria\*  
출판사 : 투게더  
가격 :

## Lena Maria Live in Korea 2003

여러차례에 걸쳐서 TV와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유명해진 장애인 '레나 마리아'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했던 공연실황 앨범이다.

그녀는 양 팔과 한 다리가 없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 준다.

이 앨범에 있는 대부분의 곡들은 'What a wonderful World', 'Amazing Grace'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이

고, 특별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로 불러서 더 큰 감동을 전해준다.

그리고, 보너스로 '레나마리아의 다큐멘터리'와 'MBC수요예술무대' 공연실황이 VCD로 주어지고 있다.

온 가족이 같이 보고, 들으며 큰 감동과 감사를 느끼리라 기대한다.

### 논리야 놀자 동전 뒤집기

캄캄한 방 안에 짝수 개의 동전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앞면이, 나머지는 뒷면이 위로 보이게 놓여 있습니다(캄캄한데 보일리아 없지만...)

이 동전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모아, 양쪽의 앞면 개수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동전 전체의 개수와 앞면의 개수뿐이고, 동전을 만져봐도 앞뒤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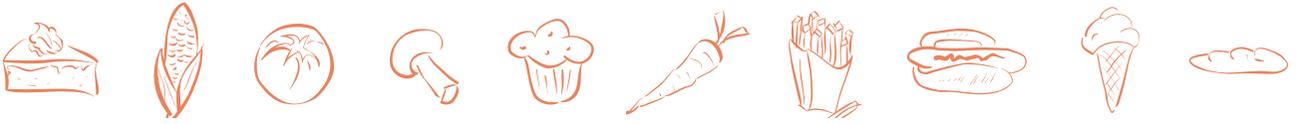
### 지난호 정답

$90 \times 99 = 990 \times 9 = 8910$   
을 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답은

$96 \times 93 = 992 \times 9 = 8928$ .

지난호 정답자(10월호)  
최대은(고등부)



FOOD

# 콩나물국밥

남은 밥 한 공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길 때, 뜨겁고도 시원한 것에 익숙한 우리네 이종적 기호를 만족시킬 만한 이 겨울에 딱 좋은 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 식욕촉진과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21,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 만점인 콩나물국밥으로 남은 밥 한 공기도 처리(?)하고, 초겨울 추위에 잔뜩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후련'하게 짹 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 • 필요한 재료

찬밥 1공기, 콩나물 100g, 김치 80g, 양지머리 30g(참기름 ½작은술, 깨소금 ½작은술, 다진 파 ½작은술, 다진 마늘 ¼작은술, 소금 약간), 양지머리 육수 2컵, 대파 ¼대, 다진 마늘 1½작은술, 새우젓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달걀노른자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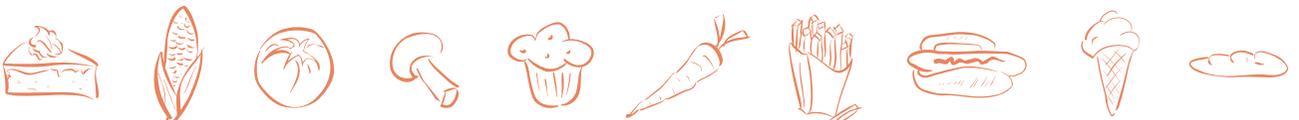
## • 이렇게 만드세요

1. 양지머리를 삶아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건진다.
2. 고기를 결대로 찢어서 양념한다.
3. 김치는 송송 썬다.
4. 뚝배기에 찬밥을 담고 육수를 부은 후 콩나물, 김치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송송 썬 파와 마늘을 넣는다.
5. 한번 끓으면 양념한 고기를 넣고 달걀노른자와 깨소금을 얹는다.

6.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다. 콩나물국밥은 새우젓으로 간을 해야 맑고 시원한 맛이 난다.

## Tip 육수 만들기

양지머리 또는 사태 600g, 물 12컵, 대파 1대, 양파 ½개, 마늘 3쪽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시간 30분 동안 끓인 후 양이 2/3로 줄면 배보자기에 거른다. 한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냉동할 때 200cc 우유팩을 깨끗하게 씻어 육수를 담은 뒤 냉동하면 하나씩 꺼내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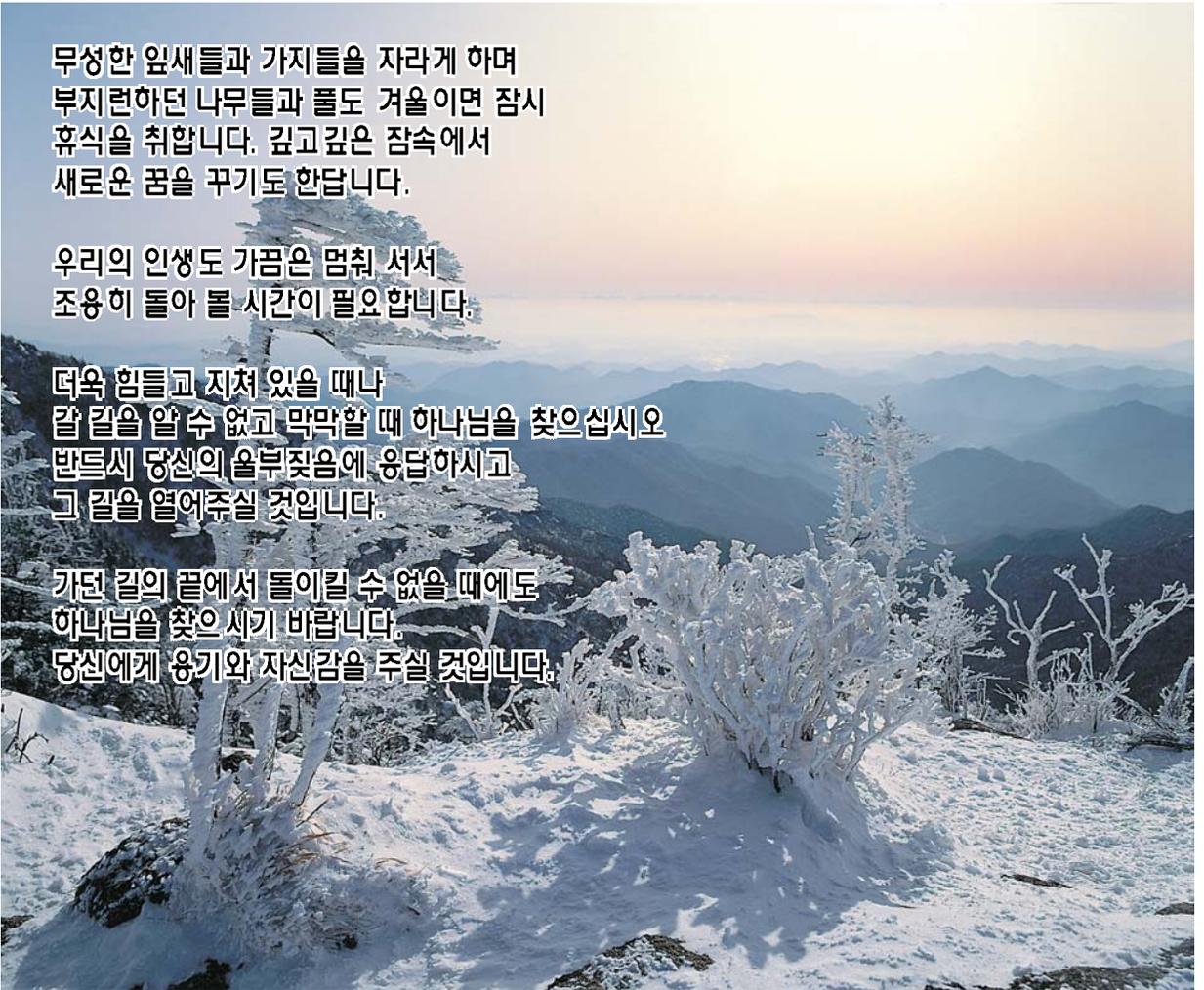


무성한 잎새들과 가지들을 자라게 하며  
부지런하던 나무들과 풀도 겨울이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깊고깊은 잠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멈춰 서서  
조용히 돌아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 힘들고 지쳐 있을 때나  
갈 길을 알 수 없고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던 길의 끝에서 돌이킬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1시 / 2부 :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오전 9시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년2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 1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김재영 장로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 신문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http://www.wpc.or.kr>      ☎ 교회 : 2299-1011      출판실 : 2295-0114      FAX / 2292-0309

만든이들 / 간사 : 백기용 목사      주간 : 이종훈 집사      취재팀 : 배승원, 홍지혜, 이수정, 임현석      미술 디자인팀 : 김현정, 유정림, 김윤주      사진 : 차주영